

6만명의 건축사협회

요즘 나라 안은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의사들의 집단휴업, 롯데호텔의 노사분규 그리고 은행원들의 은행 통폐합 반대로 인한 금융마비 등 잇단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방식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감격도 잠시, 남북관계보다 남남 갈등이 심화되고 국론통일이 안되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집단이기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호언하지만 매킴들은 구조조정의 지연은 불가피하며,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의약분업은 의사들에 이어 약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도 의사들의 휴업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한 것이기에 충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성명서와 그들의 집회 농성이 연일 신문지면을 차지하던 때, 의대교수들과 수련의 및 의대생들의 일사분란한 의협(醫協)지지 성명서 발표와 시위 사진을 보면서 같은 전문직업인인 건축사로서 부러움을 느낀 것 또한 사실이다.

총회 결의에 따라 발족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협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지금 수익사업 위원회에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봉사만 할 수 있는 자립형 협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제시된 내용들은 손해배상 연금, 퇴직금 등의 공제사업, 신용카드 및 보험사업, 출판사업 등 전부터 제기된 것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사업 CD 제작 판매, DB 구축 등이 추가되었다. 그 중에는 모 협회에서 시행하는 그린빌딩 인증제를 우리가 시행하자는 안, 건축사 수험 책자의 발간 및 강의 등을 직접하자는 안, 그리고 회원도서 인증제 등 참신한 안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들은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도 있으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어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기다들어야 할 것이나 이들에게는 회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 회원의 확충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마침 본 협회와 건축가협회가 UIA에 FIKA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가입하였다. 국내에서는 각자의 특성에 맞게 활동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하나가 되자는 서곡이 울려 퍼진 것이다. 금번 본협회의 UIA가입이 건축가협회 지도부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용단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 더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하나가 되고 AIA처럼 학생지부, 명예회원, 예비회원, 제휴회원, 준회원 등 회원의 다양화와 회원수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만여 건축사보 및 보조원의 준회원화, 200여 대학의 2만5천여 학생의 학생회원화 그리고 비건축사들을 명예회원으로 모신다면 8천여 회원이 7~8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옛부터 강대국의 기본이 인구 싸움이고, 요즘의 인터넷사업 또한 회원 확보 및 클릭 횟수 싸움이고 보면 우리 건축사의 자립은 회원확충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6만명 돌파!

이 때 썸이면 회비 안받는 협회도 이룩될 것이고, 의사협회도 부럽지 않으리라.

(장양순/본지 편찬위원장)